

RENDEZ-VOUS DE LA MUSIQUE FESTIVAL 2024

RE:sonance 울림의 발견

Layers, 2023 © Hailey Hyeoun Kim

사단법인 랑데뷰 드 라 무지크 페스티벌 창립 기념

랑데뷰 드 라 무지크 페스티벌 2024

2024. 8. 22-25 예술의전당 | 예술감독·피아노 김혜진

8.22. THU 7:30PM 인촌아트홀 Opening Concert. Rendez-vous Salon 랑데뷰 살롱

8.23. FRI 7:30PM IBK챔버홀 Focus I. Metamorphosen 메타모르포젠

8.24. SAT 2:00PM 리사이틀홀 Focus II. Sounds Revival: Encore 2022 사운즈 리바이벌: 앙코르 2022

8.25. SUN 2:00PM 인촌아트홀 Wondrous Fantasy: Hommage 경이로운 환상: 오마주

주최 stageone

후원

SAMSUNG

LS ELECTRIC

STEINWAY & SONS

코스모스악기
COSMOS CORPORATION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을 이끌며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서 빛났던 50년,
새로운 100년도 우리가 리드합니다

세기를 변화시킨 힘, 세계를 변화시킨 힘
LS ELECTRIC으로부터 시작됩니다

50th
ANNIVERSARY

STEINWAY & SONS

SPIRIO

세계 유명 피아니스트들의 연주를
우리집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신개념 피아노
Steinway.kr 에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RHAPSODY IN BLUE ECSTATIC IN PINK

언제나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명품 콘서트 - 스타인웨이 스피리오.
iPAD와 연동하여 스타인웨이 피아노의 연주를 무료로 얼마든지 재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혜진입니다.

한여름의 열기로 뜨거운 8월에 인사드립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랑데뷰 드 라 무지크 페스티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페스티벌의 주제는 **<RE:sonance : 울림의 발견>**입니다. 음악의 필수적 요소이자 우리의 일상 속에 산소만큼이나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소리 <Sonance>를 우리에게 익숙하고도 새로운 세기의 작품들을 통하여 재 <RE> 탐구하고, 실내악으로서 하모니를 이룬 새로운 울림 <Resonance>을 창조해 내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총 4회의 공연으로 구성된 이번 페스티벌은 랑데뷰 드 라 무지크의 시그니처 컨셉트로 자리매김한 **<랑데뷰 살롱>** 무대를 시작으로, 슈트라우스의 걸작 메타모르포젠과 쇼송의 도전적인 변화를 시도한 협주곡으로 강렬한 울림을 줄 **<메타모르포젠>**, 2022년 페스티벌의 첫 시작과 함께 국내 초연으로 선보이며 뜨거운 환호를 받았던 작품들을 재조명하는 **<사운드 리바이벌: 앙코르 2022>**, 그리고 오마주라는 주제 아래 소개되는 색채감 넘치는 공연이 될 **<경이로운 환상: 오마주>** 클로징 콘서트로 막을 내립니다.

윌리엄 그랜트 스틸, 존 윌리엄스, 리나 에스메일 등의 미국 작곡가들의 국내 초연 작품을 비롯한 우리에게 친숙하고 흥미로운 작품들을 다시, 그리고 새로이 선보이며 연주자들과 작품, 그리고 관객 사이의 시너지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닿는 울림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회에 이르기까지 진심 어린 애정과 후원으로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음악과 함께 조금 더 소중하고 특별한 '랑데뷰'를 선사하는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페스티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페스티벌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2024. 8. 22.

예술감독 **김혜진**

Dear Rendezvous friends,

As we embrace the warmth of August, I am delighted to welcome you to the third **Rendezvous de la Musique Festival** this year.

The theme of this festival is **<RE:sonance>**, invites us to <RE> explore the essence of music – sound <Sonance>, an integral part of our lives. Through both familiar and novel monumental works to create new resonances that achieve harmony through chamber music.

Our festival features four distinct concerts, starting with our signature **<Rendez-vous Salon>**. Followed by **<Metamorphosen>**, showcasing Strauss's profound masterpiece Metamorphosen alongside Chousson's concerto for violin, piano and string quartet. **<Sounds Revival: Encore 2022>** will present works that received enthusiastic acclaim from their Korean premieres in 2022. The festival will conclude with **<Wondrous Fantasy: Hommage>**, celebrating the theme of homage through a vibrant performance.

We look forward to conveying a profound and moving experience with both familiar and intriguing music, including Korean premieres by American composers such as William Grant Still, John Williams, and Reena Esmail. With the synergy of rendezvous among performers, music, and audience, we hope to touch deep in your heart.

Last but not least, I extend my heartfelt gratitude to all who have supported and believed in us over the past three years. As we look forward to new endeavors and challenges, your ongoing love and support will be invaluable in helping our festival continue to grow and make a lasting impact.

With heartfelt thanks,

August 22, 2024

Artistic Director **HYEJIN KIM**

Opening Concert.

랑데뷰 살롱 Rendez-vous Salon

2024. 8. 22. THU. 19:30 예술의전당 인촌아트홀

헨델/할보르센 1864-1935

Händel/Halvorsen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파사칼리아 g단조, HWV432

Passacaglia for Violin and Viola in g minor, HWV432

Violin 정주은, Viola 임지환

(7분)

프랑시스 폴랑크 1899-1963

Francis Poulenc

소프라노와 피아노를 위한 가곡집 ‘노래들’

‘Airs Chantés’ for Soprano and Piano

Air romantique / Air champêtre / Air grave / Air vif

Soprano 김현희, Piano 공희상

(8분)

베드르지흐 스메타나 1824-1884

Bedřich Smetana

피아노 삼중주 g 단조, Op.15

Piano Trio in g minor, Op.15

Piano 황건영, Violin 임동민, Cello 이강현

(30분)

I N T E R M I S S I O N

사무엘 바버 1910-1981

Samuel Barber

네 손을 위한 모음곡 ‘Souvenirs(추억)’ Op.28

Suite for Piano 4 Hands, Op.28 ‘Souvenirs’

Pianos 예수아, 황건영

(12분)

아론 코플랜드 1900-1990

Aaron Copland

바리톤과 피아노를 위한 가곡집 ‘미국의 옛 노래들’, 제1권

‘Old American Songs’ for Baritone and Piano’, Book 1

The Boatmen’s Dance / The Dodger / Long Time Ago

Simple Gifts / I Bought NE a Cat

Baritone 석상근, Piano 공희상

(12분)

윌리엄 그랜트 스틸 1895-1978

William Grant Still

현악 사중주를 위한 ‘파나마의 춤’ 국내초연

‘Danzas de Panama’ for String Quartet

I. Tamborito

II. Mejorana y Socov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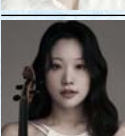
III. Punto

IV. Cumbia y Congo

이든 콰르텟

(14분)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으로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술감독/피아노 김혜진	· 부조니국제 콩쿠르, 홍콩 국제 피아노 콩쿠르 입상 · 살라스티나 뮤직 소사이어티 상주 피아니스트 · 미국 콜번학교 교수진
	피아노 공희상	· 오사카 슈베르트 콩쿠르 ‘최우수 반주자상’ 수상 · 삼육대, 연세대, 이화여대, 국립오페라 스튜디오 출강
	피아노 예수아	·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피아노 부문 4위 · 영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우승, 루빈스타인 국제 영아티스트 콩쿠르 우승,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준우승
	피아노 황건영	· 그랜드 프라이즈 비르투오조 콩쿠르 1위, 레나타 솔러 콩쿠르 입상 · UNIST 대학 UPAF 교수진, 대동 스튜디오 연주시리즈 음악감독
	바이올린 임동민	· 서울국제음악콩쿠르 1위, KBS 한전음악콩쿠르 대상 · 이든 콰르텟 멤버
	바이올린 정주은	·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2위 및 청중상, 2023 면사랑 신진 유망 연주자상 수상 · 이든 콰르텟 멤버
	비올라 임지환	· 2022 Internal Hochschulwettbewerb für Viola und Kontrabass 3위 · 이든 콰르텟 멤버
	첼로 이강현	· 프랑스 루이비통 재단 Classe d’Excellence de Violoncelle 시즌 2018/2019 최종 수상자 · 스위스 Verbier Festival 아카데미 선정
	소프라노 김현희	· 서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예원학교·서울예고, 선화예술중·고등학교, 덕원예고, 대원여고 출강 · 한국성악가협회, 서울예술가곡협회 정회원 및 전문연주자로 활동
	바리톤 석상근	· 유럽의 권위있는국제성악콩쿠르 7차례 그랑프리 우승, 독일 뮌스터시립오페라극장 전속 솔리스트 역임 · 사회적 기업 (주)톨뮤직 소속 아티스트 & 이 마에스트리 정단원
	앙상블 이든 콰르텟	· 2024 프레미오 파올로 보르치아니 국제콩쿠르 2위 및 젊은 심사위원상 수상 · 2024 펠릭스 멘델스존 바르톨디 콩쿠르 3위 수상 *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객원 첼리스트 이강현의 연주로 함께 합니다.

헨델/할보르센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파사칼리아 g단조, HWV432

Händel/Halvorsen

Passacaglia for Violin and Viola in g minor, HWV432

파사칼리아는 17세기 초 스페인에서 발생한 춤곡으로, 점차 독자적인 기악곡으로 발전했다. 헨델의 '파사칼리아'는 1720년에 쓴 '하프시코드 모음곡 제7번'의 여섯 번째 곡이다. 노르웨이의 작곡가 겸 지휘자 요한 할보르센(1864~1935)이 1893년에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이중주로 편곡했는데 오늘날에는 이 버전이 더 유명하다. 할보르센은 편곡 과정에서 원곡의 64마디를 98마디로 늘렸고 자신만의 악상을 교묘하게 집어넣었다. 하지만 하프시코드의 날카로운 음색으로 연주되는 원곡 선율의 격정적이면서도 애수에 찬 분위기를 고스란히 살려내면서도 여기에 풍요로운 느낌을 더해냈다는 점에서 할보르센의 도박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한 번에 두 음을 동시에 연주하는 더블 스톱 기법을 빈번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바이올린과 비올라만으로도 현악 사중주에 맞먹는 풍부한 울림을 내게끔 되어 있으며, 따라서 두 연주자 모두에게 매우 뛰어난 기량을 요구한다.

프랑시스 풀랑크

소프라노와 피아노를 위한 가곡집 '노래들'

Francis Poulenc

'Airs Chantés' for Soprano and Piano

프랑시스 풀랑크는 프랑스의 신고전주의 작곡가 그룹인 '6인조' 가운데 가장 젊고 유능한 인물이었다. 그는 40여 년에 걸쳐 146편의 가곡을 썼으며 대개 초현실파 시인들의 시에 기초해 작곡했으나, 1927~28년에 쓴 가곡집 '노래들'은 예외적으로 장 모레아스가 쓴 고전주의적 경향의 시에 기초하고 있다. 풀랑크는 이 시들을 싫어해서 시를 모독하기 위해 멋대로 작곡했다고 하지만, 아름다운 선율 때문에 이후 널리 사랑받는 작품이 되었다.

첫 곡 '낭만적인 노래'는 자신의 운명이 폭풍으로도 덮지 못할 만큼 힘들고 고달프다는 사실을 호소하는 노래이다.

두 번째 곡 '전원적인 노래'는 샘의 아름다움을 고대 그리스적인 느낌으로 찬미하는 노래로, 경쾌하고 밝은 분위기를 띤다.

세 번째 곡 '장중한 노래'는 음울한 자연 풍경 속에서 분노와 회한을 토로하는 노래로, 무겁고 엄숙하다.

마지막 곡 '활기찬 노래'는 자연의 숭고함을 찬양하는 노래로, 즐겁고 활기찬 느낌이다.

베드르지흐 스메타나

피아노 삼중주 g 단조, Op.15

Bedřich Smetana

Piano Trio in g minor, Op.15

스메타나는 1855년 9월에 딸이 성홍열로 죽자 작곡에 몰두함으로써 아픔을 이겨내려 했다. 워낙 작업에 집중했던 탓에 이 삼중주는 곧 완성되었고, 작곡가는 1857년에 이 곡을 개정했다. 1악장은 강렬하고 서정적이며, 비교적 밝은 제2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둡다. 2악장 '간주곡'의 주요 주제는 1악장의 제1주제에서 따와 변형한 폴카로 꽤 장난스러운데, 이는 작곡가의 딸을 암시하는 듯하다. 스메타나는 마지막 론도 피날레 악장의 1주제부를 자신이 1846년에 쓴 '피아노 소나타 사단조'에서 거의 100마디 가까이 차용해 채워 넣고 있다. 대단한 활기를 지니고 설 새 없이 붕붕거리는 론도 주제는 앞의 악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이 활기는 곧 첼로가 연주하는 슬프고 서정적인 에피소드로 가로막히고 만다. 스메타나가 이 곡을 장조로 마무리한 것은 약간 의외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작곡가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사무엘 바버

네 손을 위한 모음곡 'Souvenirs(추억)' Op.28

Samuel Barber

Suite for Piano 4 Hands, Op.28 'Souvenirs'

사무엘 바버(1910~1981)는 20세기 작곡가로는 드물게 뛰어난 선율적 재능을 지녔으며, 유명한 '현을 위한 아다지오' 외에도 듣기 쉽고 서정적인 작품을 다수 작곡했다. '추억'은 그가 1951년에 완성한 곡으로, 원래는 네 손을 위한 곡이었으나 바버는 곧바로 피아노 독주 버전도 마련했고 나중에는 관현악용으로 편곡해 발레곡으로도 만들었다. 작곡가는 원래 버전에 단 서문에서 이렇게 썼다. "처음 탱고가 생겨난 시기인 1914년경 뉴욕 플라자 호텔의 팜 코트를 배경으로 하는 막간극을 상상해 보라. '추억'은 아이러니나 조롱이 아닌 즐거운 상념함이 담긴 애정으로 기억하는 것을 뜻한다." 이 작품은 전체 6악장이며, '왈츠', 왈츠 비슷한 2박자의 운무인 '쇼티셰', 발레에서 두 사람이 추는 춤인 '파드되', 사교댄스의 일종인 '투스텝', '헤지테이션 탱고'(휴지와 미끄러지는 듯한 움직임 임의로 교차시킨 탱고), '갈롭'(2/4박자로 빠르게 진행되는 운무)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론 코플란드

바리톤과 피아노를 위한 가곡집 '미국의 옛 노래들', 제1권

Aaron Copland

'Old American Songs' for Baritone and Piano', Book 1

미국 작곡가 아론 코플랜드는 초기에는 재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추상적 경향을 보였으나 나중에는 민요풍의 소박한 선율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독특한 어법을 확립했다. '미국의 옛 노래들'은 말 그대로 미국의 옛 노래들을 모아 편곡한 작품으로, 일부 대목은 고치거나 새로 쓰기도 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제1권'은 1950년에, '제2권'은 1952년에 나왔다. '제1권'의 첫 곡 '벧사공의 춤'은 19세기 중반에 흑인들이 미국 극장가에서 부르던 막간용 노래에 기초한 것으로, 작곡

가는 인종주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흑인 사투리를 피해 가사를 다시 썼다. 두 번째 곡 '협잡꾼'은 여러 직업을 풍자하는 노래로, 원래 7절이었으나 3절로 줄였다.

세 번째 곡 '오래전에는' 감성적인 사랑 노래이며, 네 번째 곡 '소박한 선물'은 미국 셰이커 교도들의 찬송가이다. 한편 마지막 곡 '나는 고양이를 샀다네'는 미국 농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여러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어간 민요이다.

윌리엄 그랜트 스틸

현악 사중주를 위한 '파나마의 춤'

William Grant Still

'Danzas de Panama' for String Quartet

미국 작곡가 윌리엄 그랜트 스틸(1895~1978)은 대략 200편에 달하는 곡을 썼으며, '아프리카계 미국 작곡가의 대부'로 평가된다. '파나마의 춤'은 1948년에 쓴 곡으로, 1940년대에 엘리자베스 왈도가 모은 파나마 민속음악 모음집에 기초하고 있다. 각 악장은 2~3개의 춤이 결합된 형태를 띤다.

1악장 '탐보리토'는 제2바이올린 주자가 악기를 두드리면서 독특한 리듬감을 형성하는 가운데 슬프고 느린 춤곡 악상으로 이어진다. 이후 작곡가는 이 두 춤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겹쳐 잇는다.

2악장 '메호나라와 소카본'의 첫머리는 파나마식 왈츠라 할 수 있는 태평한 선율로 시작한다. 중간부도 역시 춤곡이지만 다소 불길한 분위기를 띤다.

3악장 '퐁토'는 나긋나긋한 멕시코풍 악상으로 시작하며, 중간부는 한층 활기차다.

4악장 '쿨비아와 콩고' 역시 제2바이올린 주자가 악기를 두드리면서 시작하며, 아프리카 음악에 라틴아메리카적인 요소를 풍부하게 엮은 느낌으로 진행된다.

글 | 황진규 음악칼럼니스트

Focus I.

메타모르포젠 Metamorphosen

2024. 8. 23. FRI. 19:30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존 윌리엄스 1932-
John Williams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노래와 소박한 선물’
‘Air and Simple Gifts’ for Violin, Cello, Clarinet and Piano
Piano 그레이스 여, Violin 김현미, Cello 최경은, Clarinet 김상윤

국내초연

(4분)

에르네스트 쇼송 1855-1899
Ernest Chausson

바이올린, 피아노, 현악 사중주를 위한 협주곡, Op.21
Concerto for Violin, Piano and String Quartet, Op.21
I. Décidé
II. Sicilienne
III. Grave
IV. Très animé
Piano 김혜진, Violin 백주영, 리수스 콰르텟

(40분)

I N T E R M I S S I O N

리나 에스메일 1983-
Reena Esmail

피아노 삼중주 ‘숨’
‘Saans’ (Breath) for Piano Trio
Piano 그레이스 여, Violin 이해니, Cello 마유경

(10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1864-1949
Richard Strauss

23개의 독주 현악기를 위한 ‘메타모르포젠’
‘Metamorphosen’ for 23 Solo Strings
앙상블 에드 무지카

(30분)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으로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술감독/피아노 김혜진	· 부조니국제 콩쿠르, 홍콩 국제 피아노 콩쿠르 입상 · 살라스티나 뮤직 소사이어티 상주 피아니스트 · 미국 콜번학교 교수진
	피아노 그레이스 여	· 영국 킹스컬리지대학 강사 역임 · 영국 PIANO WEEK Festival 교수진 및 서울대, 서울예고, 예원학교 출강
	바이올린 김현미	· 동아음악 콩쿠르, 워싱턴 국제 콩쿠르 입상, 탕글우드, 말보로 여름음악제, 윤이상 음악제(베를린, 평양) 등 초청연주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Quartet21 멤버, 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음악감독, 앙상블 에드 무지카 리더
	바이올린 백주영	· 파가니니, 시벨리우스, 인디애나폴리스, 퀸엘리자베스, 서울 국제콩쿠르 등 석권, 미국 YCA 국제오디션 우승 · 서울대학교 교수, 앙상블 오푸스 리더
	바이올린 이해니	· 2021 Fischhoff Chamber Music Competition 대상 및 금상 · 리수스 콰르텟 리더
	첼로 마유경	· 동아음악 콩쿠르 1위, 멜버른 국제실내악콩쿠르 3위 · 덕원예고 출강, 리수스 콰르텟 멤버
	첼로 최경은	· 미국 캘리포니아 El Camino College Cello 교수 역임 · 미국 Montecito International Summer Festival 교수, 서울대, 예원학교, 서울예고 출강
	클라리넷 김상윤	· 세인트 폴 챔버 오케스트라 종신 수석 · 미네소타 대학교 조교수, 2015 프라하 봄 국제콩쿠르 우승
	앙상블 리수스 콰르텟	· 2023 멜버른 국제실내악콩쿠르 3위 및 현대음악 해석상 수상 · 2024 아트실비아 실내악 오디션 특별상 수상
	앙상블 에드 무지카	· 2021 모차르트 서거 230주년 기념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녹음 · 2023, 2024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 선정 시리즈 콘서트 개최

존 윌리엄스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노래와 소박한 선물'

John Williams

'Air and Simple Gifts' for Violin, Cello, Clarinet and Piano

1932년생 미국 작곡가 존 윌리엄스는 영화 <스타워즈>, <슈퍼맨>, <쥬라기 공원>, <해리 포터> 등에서 음악을 맡은 영화음악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으나, 협주곡이나 관현악곡, 실내악 등 '진지한' 클래식 음악도 많이 썼다. '노래와 소박한 선물'은 그가 2009년 1월에 열린 버락 오바마의 44대 대통령 취임식을 위해 쓴 사중주곡이다. 이 곡은 19세기 미국 셰이커 교도들의 찬송가 '소박한 선물'의 선율에 기초하고 있다. 이 선율은 이후 코플랜드 등 여러 작곡가의 작품에 인용되었는데, 윌리엄스는 오바마가 특히 좋아하는 클래식 작곡가가 코플랜드임을 감안해 이 선율을 골랐다. 이 곡은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단락은 첼로와 피아노의 단순한 반주에 맞춰 바이올린이 제시하는 감상적인 분위기의 '노래'가 주도하며, 클라리넷이 제시하는 '소박한 선물' 주제와 그에 따른 일련의 변주가 둘째 단락을 이룬다. 마지막에 '노래' 선율이 재등장해 전곡을 마무리한다.

에르네스트 쇼송

바이올린, 피아노, 현악 사중주를 위한 협주곡, Op.21

Ernest Chausson

Concerto for Violin, Piano and String Quartet, Op.21

에르네스트 쇼송(1855~1899)은 세자르 프랑크의 제자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취미로 작곡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작곡에 매진했다. 그가 1889~1891년에 쓴 '협주곡'은 프랑스 후기 낭만주의가 낳은 걸작임과 동시에 통상적인 분류를 거부하는 작품이다. '현악 사중주가 반주하는 이중주(혹은 이중 협주곡)'이라는 애매모호한 편성을 지닌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풍부한 반음계 화성을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의고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바그너의 영향을 부정하려 애쓴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1악장은 첫머리에서 피아노가 세 음으로 이루어진 동기를 연주하면서 시작하며, 주요 주제가 거기서 성장해 나온다.

2악장은 바로크 시대 춤곡인 시칠리아나 리듬에 기초하며, 가벼우면서도 절제된 우아함을 지닌다.

3악장은 느린 템포를 취하며 음울하고 혼란스럽다.

4악장은 또 다른 바로크 춤곡인 지그의 활달함과 토카타의 추진력을 결합한 성격을 지닌다.

리나 에스메일

피아노 삼중주 '숨'

Reena Esmail

'Saans'(Breath) for Piano Trio

리나 에스메일은 1983년생 인도계 미국 작곡가로,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인도 음악과 서구 클래식 음악을 결합한 작품을 많이 썼다. 그녀는 2017년에 '클라리넷 협주곡'을 썼는데, 같은 해에 이 작품의 느린 악장을 피아노 삼중주로 편곡해 두 동료 음악가끼리 올리는 결혼식에 줄 선물로 삼았다. 작곡가는 세자르 프랑크가 외젠 이자이에게 줄 결혼 선물로 '바이올린 소나타'를 썼다는 이야기에 매혹되어 자신도 비슷한 일을 해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 곡은 인도 북동부의 평야지대인 힌두스탄 일대의 라가(인도의 고전음악에서 쓰이는 음계) 두 가지에 기초하고 있다. 피아노 독주가 서정적인 악상으로 반주하는 가운데 두 현악기가 인도 음악 풍의 악상을 연주하면서 시작하며, 처음에는 여유롭고 다정한 느낌으로 진행되다가 격렬한 중간부를 거쳐 이윽고 첫머리로 돌아간다. 여운을 남기면서 아쉬운 듯 희미하게 마무리된다. 서정미와 독특한 몽환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23개의 독주 현악기를 위한 '메타모르포젠'

Richard Strauss

'Metamorphosen' for 23 Solo Strings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1944년 8월부터 1945년 4월에 걸쳐 이 곡을 썼다. 당시는 2차 세계대전에 막바지에 다다른 때였고, 빈 국립 오페라 극장, 드레스덴 젬퍼 오페라 극장 등이 연합군의 공습으로 연이어 파괴되었다. 슈트라우스는 원래 이 곡을 현악 칠중주로 계획했으나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수정을 거듭해 최종적으로는 23개의 독주 현악기를 위한 곡으로 만들었다. 제목은 '변용', 즉 모습을 바꾸는 것을 뜻하며, 이는 이 곡이 일종의 느슨한 변주곡임을 의미한다. 전체적인 구성은 느린 도입부와 빠른 중간부, 처음 템포로 돌아가는 마지막 단락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곡을 이루는 주제 요소는 크게 다섯 가지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 베토벤의 '교향곡 제3번' 2악장에 나오는 장송행진곡 주제이다. 슈트라우스는 곡 말미에서 이 주제를 재인용하면서 '추모!(In Memoriam!)'라 적었으며, 이는 이 곡이 작곡가가 독일 음악에 바치는 고별사임을 암시한다.

Focus II.

사운즈 리바이벌: 앙코르 2022 Sounds Revival: Encore 2022

2024. 8. 24. SAT. 14:00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에이미 비치 1867-1944
Amy Beach

피아노 삼중주, Op.150 2022 국내초연 (15분)
Piano Trio, Op.150

I. Allegro
II. Lento espressivo
III. Allegro con brio
Piano 황건영, Violin 정주은, Cello 이호찬

찰스 아이브스 1874-1954
Charles Ives

피아노 삼중주, S.86 2022 국내초연 (24분)
Piano Trio, S.86

I. Moderato
II. Presto
III. Moderato con moto
Piano 예수아, Violin 임동민, Cello 이경준

INTERMISSION

김택수 1980-
Texu Kim

플루트, 비올라, 피아노를 위한 '디포 베이의 일몰' 2022 국내초연 (5분)
'Sunset in Depoe Bay' for Flute, Viola and Cel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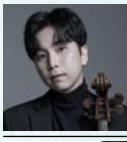
Piano 황건영, Flute 박예람, Viola 임지환

케빈 푸츠 1972-
Kevin Puts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사중주 '살아있는 프레스코' 2022 국내초연 (25분)
'Living Frescoes' for Clarinet, Violin, Cello and Piano

I. Fire Birth
II. The Path
III. The Deluge
IV. The Voyage
V. First Light
Piano 김혜진, Violin 박규민, Cello 김민지, Clarinet 김상윤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으로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술감독/피아노 김혜진	· 부조니국제 콩쿠르, 홍콩 국제 피아노 콩쿠르 입상 · 살라스티나 뮤직 소사이어티 상주 피아니스트 · 미국 콜번학교 교수진
	피아노 예수아	·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피아노 부문 4위 · 영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우승, 루빈스타인 국제 영아티스트 콩쿠르 우승,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준우승
	피아노 황건영	· 그랜드 프라이즈 비르투오조 콩쿠르 1위, 레나타 솔러 콩쿠르 입상 · UNIST 대학 UPAF 교수진, 대동 스튜디오 연주시리즈 음악감독
	바이올린 박규민	· 막스 로스탈 국제 콩쿠르 1위 없는 2위 및 청중상, 쿠퍼 국제콩쿠르 1위, 하얼빈 국제 콩쿠르 2위 수상 ·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 멤버, 베를린 슈타츠헤펠레 부악장(12월부터 활동 예정)
	바이올린 임동민	· 서울국제음악콩쿠르 1위, KBS 한전음악콩쿠르 대상 · 이든 콰르텟 멤버
	바이올린 정주은	·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2위 및 청중상, 2023 면사랑 신진 유망 연주자상 수상 · 이든 콰르텟 멤버
	비올라 임지환	· 2022 Internal Hochschulwettbewerb für Viola und Kontrabass 3위 · 이든 콰르텟 멤버
	첼로 김민지	· 덕수궁 석조전 음악회 음악감독 및 여수예고국제음악제 예술감독 · 서울대학교 교수
	첼로 이경준	· 다비드 게링가스 국제 첼로콩쿠르, 불가리아 Young Virtuoso 국제콩쿠르 우승 · 노르웨이 라디오 심포니 객원수석 역임
	첼로 이호찬	· 앙상블 블랭크 the Artist Committee, 책가옥 시리즈 음악감독, 첫 데뷔 앨범 2022년 10월 발매 · 연세대학교, 예원학교, 서울예고, 선화예고, 부산예고, 계원예고 출강
	플루트 박예람	· 프랑스 생모 음악원 교수 · 벨기에 라 모네 왕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단원
	클라리넷 김상윤	· 세인트 폴 챔버 오케스트라 종신 수석 · 미네소타 대학교 조교수, 2015 프라하 봄 국제콩쿠르 우승

에이미 비치

피아노 삼중주, Op.150

Amy Beach

Piano Trio, Op. 150

에이미 비치(1867~1944)는 대규모의 음악 작품으로 성공을 거둔 최초의 미국 여성 작곡가이다. 대략 300편의 작품을 남겼으며, 노년에는 미국 음악계 전체의 존경을 받았다. 특히 여성 작곡가 사이에서 그녀의 존재는 전설적이었다.

'피아노 삼중주'는 1938년에 쓴 곡으로, 작곡가의 실내악곡 가운데 마지막 주요 작품이다.

1악장은 피아노의 인상주의적인 음형 위에 첼로가 주제 악상을 연주하면서 시작하며, 바이올린이 이를 받아 연주한다. 이 악장은 전체적으로 악상이 풍부하고 유려하며 열정적이다.

2악장은 1악장이 비해 한층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분위기로 진행되며, 중간에는 엄격한 대위법을 구사한 프레스토 단락이 나온다.

3악장의 주요 주제는 흑인 노예 농장에서 비롯한 춤인 케이크워크에서 흔히 사용되는 래그타임 리듬을 지닌다. 전체적으로 열정적이면서도 동요하는 느낌을 띠며, 전곡 가운데 특히 낭만주의적인 느낌이 강하다.

찰스 아이브스

피아노 삼중주, S.86

Charles Ives

Piano Trio, S.86

아이브스의 아내 증언에 따르면 이 곡은 작곡가가 예일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1악장은 세 차례에 걸쳐 연주되는 27마디짜리 악상에 기초한다.

2악장에는 'TSIAJ'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 이것은 '이 스케르초는 농담이오'(This Scherzo Is a Joke)라는 뜻이다. 이 악장은 아이브스의 전매특허나 다름없는 다조성과 음악적 인용의 대향연이라 할 수 있다. 바이올린이 깡깡이 같은 소리로 민요 '옛날 옛적에'나 포스터의 가곡 '나의 켄터키 옛집' 같은 음악의 단편을 마구 훑는 가운데 다른 두 악기는 전혀 상관없는 선율을 연주한다.

3악장은 전곡 가운데 가장 길며, 이전 두 악장을 합친 것에 맞먹는다. 여기에도 아이브스의 이전 자작곡을 포함해 인용이 꽤 들어가지만, 2악장처럼 '정신 사나운' 느낌을 주지는 않으며 나름대로 서정적이다. 다만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며 아이브스가 자아내는 음색과 음의 조합은 끝까지 다소 거슬리는 긴장감을 자아낸다.

김택수

플루트, 비올라, 피아노를 위한 '디포 베이의 일몰'

Texu Kim

'Sunset in Depoe Bay' for Flute, Viola and Cello

김택수는 1980년생 작곡가로, 원래 화학을 전공했으나 작곡으로 전향해 석사와 박과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여러 장르에 걸쳐 대단히 다양한 작품을 발표해 왔다. '디포 베이의 일몰'은 2017년에 현대음악 전문 단체인 '피어 노 뮤직'(Fear No Music)의 위촉을 받아 쓴 곡으로, 작곡가는 해당 악단에 이 곡을 헌정했다. 이 작품은 작곡가가 미국 오리건 주 해안의 한적한 소도시인 디포 베이에서 석양을 바라본 체험에 기초하고 있다. 당시 그는 다양한 감정을 느꼈지만, 이 곡에서는 그러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순전히 시각적인 인상만을 음악화하고자 했다. 음악은 '해변의 소리'와 더불어 시작하며, 세 악기 모두 비전통적인 음향으로 이를 묘사한다. 이 음향들은 천천히 하행하는 선율들로 바뀌는데, 이는 태양이 천천히 지는 모습을 암시한다. 마지막 한 줄기 햇살마저 사라지고 나면 일몰이 끝나듯이 음악도 마지막 음과 더불어 사라진다.



케빈 풋츠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사중주 '살아있는 프레스코'

Kevin Puts

'Living Frescoes' for Clarinet, Violin, Cello and Piano

케빈 풋츠는 1972년생 미국 작곡가로, 2012년에는 오페라 <고요한 밤>으로 풀리처 상을, 2023년에는 협주곡 '접촉'으로 그래미 상을 수상했다. '살아있는 프레스코'는 2012년에 쓴 곡으로, 프레스코란 벽에 바른 석회화 마르기 전에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기법 혹은 그렇게 그린 그림을 뜻하며 중세 시대에 유행했다. 이 곡은 미국의 비디오 아티스트인 빌 비올라의 2002년 작품 '낮에 앞으로 가기'(이는 고대 이집트 <사자의 서> 제목을 직역한 '낮에 앞으로 가는 데 대한 책'에서 따온 제목이다)에서 영감을 받았다. '낮에 앞으로 가기'는 '디지털 프레스코'로, 인간 존재의 핵심 주제인 개성, 사회, 죽음, 재탄생을 다룬 다섯 개의 패널로 이루어져 있다. 케빈 풋츠의 작품 역시 이에 대응하는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분의 제목은 '불의 탄생', '갈', '대홍수', '항해', '최초의 빛'이다. 한편 편성 면에서는 메시앙의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에서 영감을 받았다.

Closing Concert.

경이로운 환상: 오마주 Wondrous Fantasy: Hommage

2024. 8. 25. SUN. 14:00 예술의전당 인촌아트홀

모리스 라벨 1875-1937
Maurice Ravel

플루트, 첼로, 하프를 위한 소나티네 f[♯]단조, M.40 (편곡. 카를로스 살제도)
Sonatine in f[♯] minor for Flute, Cello and Harp, M.40 (arr. Carlos Salzedo)
I. Modéré
II. Mouvement de menuet
III. Animé
Cello 최민지, Flute 유채연, Harp 이수빈

(11분)

리나 에스메일 1983-
Reena Esmail

피아노 삼중주 국내초연
Piano Trio
I. Movement
II. Movement
III. Movement
IV. Movement
Piano 김혜진, Violin 이해니, Cello 최민지

(30분)

I N T E R M I S S I O N

제시 몽고메리 1981-
Jessie Montgomery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사색’ 국내초연
‘Musing’ for Two Violins
I. Introduction
II. Initiation Song
III. Hymn
IV. Courrante
V. The Swallow
VI. Vivo
Violins 이해니, 박규민

(12분)

모리스 라벨 1875-1937
Maurice Ravel

피아노 삼중주 a단조, M.67
Piano Trio in a minor, M.67
I. Modéré
II. Pantoum. Assezvif
III. Passacaille. Très large
IV. Final: Animé
Piano 김준형, Violin 박규민, Cello 김민지

(28분)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으로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술감독/피아노 김혜진	· 부조니국제 콩쿠르, 홍콩 국제 피아노 콩쿠르 입상 · 살라스티나 뮤직 소사이어티 상주 피아니스트 · 미국 콜번학교 교수진
	피아노 김준형	· ARD 국제음악콩쿠르 준우승,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우승 · 2024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
	바이올린 박규민	· 막스 로스탈 국제 콩쿠르 1위 없는 2위 및 청중상, 쿠퍼 국제콩쿠르 1위, 하얼빈 국제 콩쿠르 2위 수상 ·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 멤버,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부악장(12월부터 활동 예정)
	바이올린 이해니	· 2021 Fischhoff Chamber Music Competition 대상 및 금상 · 리수스 콰르텟 리더
	첼로 김민지	· 덕수궁 석조전 음악회 음악감독 및 여수에코국제음악제 예술감독 · 서울대학교 교수
	첼로 최민지	· 미국 미네소타 오케스트라 정단원, 산타 바바라 심포니 종신단원 역임 · 성남시립교향악단 수석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원, 서울예고, 예원학교 출강
	플루트 유채연	· 2019 프라하 봄 국제콩쿠르 우승 · 독일 함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Philharmonisches Staatsorchester Hamburg)
	하프 이수빈	· 미국 라이언 앤 힐리 어워드 수상 · 2022 이탈리아 수오니다르파 국제 하프 콩쿠르 1위

모리스 라벨

플루트, 첼로, 하프를 위한 소나티네 f#단조, M.40

Maurice Ravel

Sonatine in f# minor for Flute, Cello and Harp, M.40

라벨은 1903년에 프랑스에 사는 영국인들을 위한 잡지인 <위클리 크리티컬 리뷰>가 연 작곡 콩쿠르에 참여했다. 피아노 소나타의 1악장에 해당하는 곡을 써내라는 게 콩쿠르 측이 내건 조건이었다. 이후 머지않아 잡지가 파산하자, 라벨은 앞서 제출했던 곡에 두 악장을 추가해 '소나티네'를 완성했다. 이 곡은 원래의 피아노곡 형태로도 자주 연주되지만 플루트와 첼로, 하프의 삼중주 버전으로도 종종 연주된다. 세기 전환기의 프랑스 작곡가들이 즐겨 다룬 편성인데다 특히 이 곡의 경우 라벨 특유의 영롱함을 살릴 수 있어서 인기가 좋다.

1악장은 매우 자유롭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소나타 형식에 기초하며, 발전부는 사뭇 고양된 분위기로 진행된다.

2악장은 단순하고 투명한 미뉴에트로, 맨 마지막 대목에 이르러 악상이 활짝 만개한다.

3악장은 3/4박자와 5/4박자를 불안하게 오가며, 뿔나팔 소리를 연상케 하는 신호와 더불어 악상이 앞을 향해 줄달음 친다.

리나 에스메일

피아노 삼중주

Reena Esmail

Piano Trio

리나 에스메일은 1983년생 인도계 미국 작곡가로,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인도 음악과 서구 클래식 음악을 결합한 작품을 많이 썼다. '피아노 삼중주'는 2019년에 쓴 곡으로, 같은 해 11월에 초연되었다. 뛰어난 피아니스트이기도 한 에스메일은 라벨의 '피아노 삼중주'를 무척 좋아하는 작품으로 꼽으면서 "라벨에게서 음색과 짜임새에 관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밝힌 바 있다.

1악장에서 피아노는 비교적 단순하고 다분히 인상주의적인 음형을 내내 연주하며, 두 현악 파트는 미끄러지는 듯한 음형을 단속적으로 연주한다.

2악장은 조용히 가물거리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듣는 이를 몽환경으로 이끈다.

3악장은 사실상 스케르초이며, 멘델스존(작곡가는 한 콩쿠르에서 멘델스존의 '피아노 삼중주 제2번'을 연주해 우승한 바 있다)과 쇼스타코비치에 인도 음악을 섞은 것처럼 들린다.

4악장은 독특한 화성 진행으로 전곡 가운데 가장 인도 음악의 영향을 강하게 보여준다.

제시 몽고메리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사색'

Jessie Montgomery

'Musing' for Two Violins

제시 몽고메리는 1981년생 미국 작곡가 겸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음악 교사로, 2023년에는 <뮤지컬 아메리카>로부터 '올해의 작곡가'로 선정된 바 있다. 그녀는 현재 언어, 방언, 즉흥성, 사회 정의에 초점을 두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사색'은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링컨 센터 실내악회의 의뢰를 받아 2023년에 쓴 곡으로, 대만계 미국인인 폴 황과 한국인 엄단비를 위해 씌어졌다. 작곡가는 버르토크 벨러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44개의 이중주'에서 영감을 받아 일련의 짧은 악장으로 이 작품을 구성했다. 또한 몽고메리는 자신이 특히 존경하는 현악 작곡가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각 악장에서 서로 다른 작곡가의 영향을 뚜렷이 드러냈다. 그녀가 이 곡에서 경의를 표한 작곡가로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파울 힌데미트, 안토니오 비발디, 다리오스 미요 등이 있다. 각 악장은 서로 성격이 다르지만, 일종의 지나가는 총동과 같다는 점에서는 서로 공통된다.

모리스 라벨

피아노 삼중주 a단조, M.67

Maurice Ravel

Piano Trio in a minor, M.67

라벨은 1913년 여름에 이 곡의 스케치를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진척이 느렸다. 그러다가 이듬해 8월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애국자였던 라벨은 전쟁에 참여하고자 작업을 서둘렀고, 그 결과 '다섯 달 걸릴 일을 다섯 주 만에' 끝낼 수 있었다.

1악장은 바스크 춤곡에서 따온 8/8박자로 되어 있다. 제1주제는 관능적이고 단단하게 응축된 화성을 지닌 반면, 제2주제는 상당히 폭넓고 사랑스럽다.

2악장의 제목 '팡툼'(Pantoum)은 말레이시아의 전통 시 형식인 '판툼'에서 나온 말이다. 이 형식은 각 연마다 행이 겹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게 특징인데, 라벨은 주제를 끊임없이 재등장시킴으로써 이 제목을 정당화한다.

3악장은 바로크 시대의 변주곡인 '파사칼리아'로 되어 있다. 구슬픈 느낌을 주는 주제는 여덟 번에 걸쳐 등장하며, 그때마다 대위법과 화성 면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한편 **피날레**는 응축된 긴장감으로 다소 음울한 열광을 펼쳐 보이고 있다.

김혜진

랑데뷰 드 라 무지크 페스티벌 예술감독 / 피아노

Artistic Director & Pianist **HYEJIN KIM**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김혜진은 독주자, 실내악 연주자, 레코딩 아티스트 그리고 교육자로서 한국 음악계를 세계에 알리며 다채로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대 주목할 만한 연주자이다. 그녀는 2005년 이탈리아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당시 만 17세로 최연소 3위에 입상하며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일찍이 국내에서 음연 콩쿠르, 이화경향, 한국일보, 쇼팽 콩쿠르, 대구 방송 콩쿠르 등을 석권하며 두각을 나타낸 그녀는 만 17세 나이에 도독하여 부조니 콩쿠르를 포함한 그 외 다수 콩쿠르(홍콩 국제 피아노 콩쿠르, Steinway & Sons 국제 콩쿠르, 칸투 콘체르토 국제 콩쿠르, 네덜란드 영 피아니스트 국제 콩쿠르, 토론토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 및 입상한 바 있으며, 또한 외국인들을 위한 장학금재단인 DAAD(독일 학술 교류처) 장학생으로 선발되며 세계무대에 입지를 굳혀 나갔다.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 경기 필하모닉 등 국내외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고, Eliahu Inbal, Andreas Orozco-Estrada, JoAnn Falletta, 최수열, 김대진, 성시연, 장윤성 등의 지휘자들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2013년 아르메니안 필하모닉, Edaurd Topchjan과 협연한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1번과 2번으로 소니 레이블로(Sony Classical) 첫 음반을 발매하였다.

2021년 11월 그래미 후보에 오른 프로듀서인 Philip Traugott과 함께 협업한 첫 솔로 음반을 발매하였으며 다음 해 2월 Naxos 레이블과 작업한 M.Clementi의 초기 소나타들로 구성된 음반을 발매하였다. 2023년 LA Chamber Orchestra와 Jaime Martin의 바톤 아래 데뷔 무대를 가진 김혜진은 올해 여성의 날, 열네번의 그래미 수상에 빛나는 프로듀서 Judith Sherman의 지휘 아래, 오랜 동료이자 협업 아티스트 Yoshika Masuda와 듀오 음반을 발매하기도 하였다.

5살에 피아노를 시작한 김혜진은 예원학교를 거쳐 서울예고를 재학하던 중 도독하여 Fabio Bidini 교수 가르침 아래 독일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최고점으로 취득하였다. 그 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콜번 스쿨에서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그녀는 미국의 저명한 피아노 교육자였던 故 Bruce Sutherland가 설립한 Amron-Sutherland Fund Grant의 수혜자이기도 하다. 추계예술대학 국제학부 음악과 조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살라스티나 뮤직 소사이어티 상주 피아니스트, 미국 콜번 학교 교수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희상 Heesang Kong

피아노 Piano

진중한 연구와 연주를 통해 깊이있는 음악을 추구하는 피아니스트 공희상은 계원예술고등학교와 추계예술대학교를 졸업 후 스위스 취리히 국립음대 Liedklasse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였다. 그 곳에서 독일가곡의 권위자 Liedpianist Hartmut Höll 교수에게 독일가곡을 사사받았다. 제8회 일본 오사카 슈베르트 국제 가곡 콩쿨 '최우수 반주자상'과 한국 성악 콩쿨 '반주특별상'을 수상한 그는 2009년 귀국하여 현재까지 300여 차례의 음악회와 다수의 음반 녹음에 참여하였고 '겨울 나그네'와 '시인의 사랑' 등 독일 예술가곡 중심의 활발한 무대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대, 한예종, 성신여대, 추계예대, 국민대, 목원대, 평택대를 출강하였으며 현재는 연세대, 이화여대, 삼육대, 국립오페라단 스튜디오에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그레이스 여 Grace Yeo

피아노 Piano

유럽 베토벤 협회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그레이스 여는 현재 서울과 런던을 기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영국 Kirkman Concerts Society의 후원으로 런던 위그모어홀 독주회와 이듬해 재초청 무대(전석매진)를 통해 영국 주요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바 있다. 로얄 알버트홀, 로얄 페스티벌홀, 켈 엘리자베스홀, 맨체스터 브릿지워터홀, 버밍엄 심포니홀의 연주에서 더 인디펜던트 신문사와 음악평론가협회 매거진의 극찬을 받았으며, BBC Radio 3의 'In Tune' 프로그램에 초청되어 그녀의 연주가 영국 전역에 생방송되기도 하였다.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를 장학생으로 졸업한 그레이스 여는, 영국 길드홀 음악학교에서 석사과정과 Fellowship, 왕립음악원에서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마쳤다. 런던 킹스컬리지 대학 강사를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서울예고, 예원학교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매년 영국 PIANO WEEK Festival에 교수진으로 참가하고 있다.



김준형 Junhyung Kim

피아노 Piano

2022년 독일 뮌헨 ARD 국제 음악 콩쿠르 피아노 부문 준우승을 차지하며 '차분함과 노련함을 고루 갖춘 음악가'로 찬사를 받은 피아니스트 김준형은 일찍이 국내에서 틴에이지콩쿠르, 한국쇼팽콩쿠르, 삼익자일러콩쿠르, 한국리스트콩쿠르, 성정음악콩쿠르에서 모두 1위를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17년 독일 뮌헨 ARD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특별상을 수상했고, 2019년에는 센다이 국제 음악 콩쿠르 6위와 오르후스 국제 피아노 콩쿠르 4위를 수상하였으며, 2021년에는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우승을 거머쥐며 국제 청중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준형은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센다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오르후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뮌헨 캄머 오케스트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포항시립교향악단,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이어가고 있다. 김준형은 2024년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선정되어, '엽편소설'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은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예수아 Suah Ye

피아노 Piano

피아니스트 예수아는 일찍이 15세의 나이로 러시아 영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콩쿠르 사상 최초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결승에 진출하며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였다. 2016년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국제청소년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 2021년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준우승 등 주요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하였다. 2023년에는 22세의 나이로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4위에 오르며 12년 만에 한국인 피아노 부문 수상자가 되었다. 곧이어 같은 해 세계적인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예프의 초청을 받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마린스키 심포니와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협연하였으며 이스라엘 심포니, 모스크바 심포니, 러시아 국립 교향악단을 비롯한 국내외 저명 교향악단과 협연하였다. 예수아는 예원학교를 전제수석으로 졸업, 서울예고 입학 후 도독하여 2017년 독일 하노버 음대에 수석으로 조기 입학하였다. 동대학원을 거쳐 현재 최고연주자과정에서 Arie Vardi를 사사하고 있다.



황건영 Gunyoung Hwang

피아노 Piano

피아니스트 황건영은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재학 중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 음대에 조기입학하여 졸업후 쾰른 국립음대에서 석사와 최고연주자과정을, 미국 콜번 스쿨에서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을 마쳤다. 영국 “Grand Prize Virtuoso”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1위, 독일 Renata Schorler Stiftung Klavierwettbewerb, Karlrobert Kreiten Piano Competition, ARD 국제콩쿠르 실내악 부문 세미파이널리스트 등 여러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하였다. 스페인 FIMA 오케스트라, 광주여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였으며 본 베토벤 페스티벌, LA 세리토스 퍼포밍 아트센터, 플라시도 도밍고-콜번-슈타인 영 아티스트 시리즈, 라비니아 페스티벌 이사진 프라이빗 콘서트, 스타인웨이 앤 선 콘서트 시리즈, 서울문화재단 연주 등 국내외 여러 무대에 초청받아 연주자로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현재 UNIST UPAF 교수진으로서 학생들과 꾸준한 음악적 교류를 나누고 있으며, 대동 스튜디오의 음악감독으로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며 관객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김현미 Hyun Mi Kim

바이올린 Viol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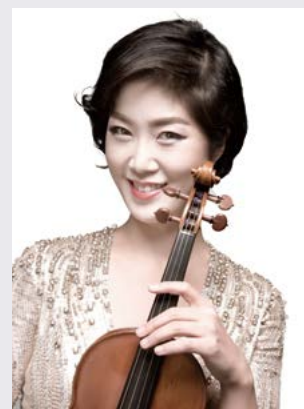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는 워싱턴 국제 콩쿠르와 동아 콩쿠르에 입상하였고 말보로와 탕글우드 등의 실내악 축제에 초청되어 연주하였다. “Musicians from Marlboro” 시리즈로 뉴욕 카네기홀, 케네디센터 등에서 공연하였고 미국의 “The Quartet Program”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실내악을 가르쳤다. 1991년 창단한 현악4중주단 Quartet 21과 2006년 올해의 예술상, 2007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대통령상, 2008년 대원음악상 연주상을 수상하였다. KBS 초청 한국 연주가 시리즈로 독주음반을 제작하였고 또한 멤버로 활동중인 Quartet 21과 함께 KBS 초청 한국 연주가 시리즈 음반, ‘이건음악회, 베를린 윤이상 1주기 추모음악회 실황 음반을 제작했으며 최근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시리즈 CD 중 첫 번째 음반 <INSPIRATION>을 발매하였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이자 문화예술교육센터장, Quartet 21의 제1 바이올린 주자, 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음악감독과 Ad Musica 리더 및 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 앙상블의 현악지도교수로 활동 중이다.



박규민 Kyumin Park

바이올린 Violin

2012년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한 박규민은 국내외 주요 콩쿨에서 여러 차례 우승하였으며 2019년 베를린 막스 로스탈 국제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와 청중상을 차지,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에서의 데뷔 무대를 가지면서 연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 박규민은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함부르크 카메라타, 센젠 심포니 오케스트라, 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부천시향, 부산시향, 성남시향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으며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금호악기 시리즈 등에서 수차례 독주회를 가지는 한편, 크론베르그 아카데미, 라비니아 페스티벌 등 유명 페스티벌에 초대받아 연주하였다. 2019년 금호문화재단 약기은행의 수혜자로 선정된 박규민은 1740년산 도미니쿠스 몬타냐나로 연주하며 현재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 멤버이다. 2024년 말부터 슈타츠카펠레 베를린에서 제1바이올린 부악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백주영 Ju-Young Baek

바이올린 Violin

시벨리우스, 파가니니, 인디애나폴리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은 백주영은 2005년 서울대 음대 역사상 최연소 교수 임용 후 2007년 세계 최초로 바흐와 이자이의 무반주 바이올린 12곡 전곡을 하루에 완주하는 등 왕성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예원학교, 서울예고를 거쳐 커티스 음악원에서 학사,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석사, 파리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백주영은 카네기홀, 링컨센터, 케네디센터, 김멜센터, 산토리홀 등 세계 주요 무대에서 연주해왔으며, 런던 필하모닉,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NHK심포니,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등과 협연하였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인 2020년, 한국인 최초로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앨범을, 그리고 이자이 바이올린 무반주 소나타 전곡앨범을 연이어 발매하여 호평을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이자 앙상블 오푸스의 리더로 활동 중이다.



이해니 Haeni Lee

바이올린 Violin

바이올리니스트 이해니는 선화예술학교와 선화예술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였다. 이후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수혜하며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텍사스 주립대학교 오스틴에서 Teaching Assistantship과 전액장학금 후원을 받으며 박사과정을 졸업하였고 Quartet Residency로 최고연주자과정(AD)을 졸업하였다. 일찍이 음연콩쿠르, 성정콩쿠르, Enkor International Competition, Indiana Concerto Competition, University of Texas String Concerto Competition에서 입상하여 솔리스트로서의 기량을 보여줬으며, Tanglewood Music Center Fellowship Program, Music Academy of the West, Pacific Music Festival에 전액장학금으로 참여하였다. 현재 리수스 콰르텟의 리더로서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선화예술학교, 선화예고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임동민 Dongmin Lim

바이올린 Violin

바이올리니스트 임동민은 서울국제음악콩쿠르 1위, KBS한전음악콩쿠르 대상,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윤이상특별상, 중앙음악콩쿠르 1위를 비롯해, 국내외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하며 그의 실력을 입증하였다. 그는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 후 평창대관령음악제 라이징스타에 선정되었으며, 일본 이시카와 뮤직 아카데미에서 IMA음악상을 수상하며 무대에 올랐고, KBS교향악단,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성남시향, 수원시향, 인천시향, 군포프라임오케스트라 등 국내 정상적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하였다. 이든 콰르텟의 멤버로서 제13회 프렐미오 파올로 보르치아니 국제콩쿠르 2위 및 젊은 심사위원상, 펠릭스 멘델스존 바르톨디 콩쿠르 3위를 수상하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과정 졸업 후, Ning Feng 교수 사사로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에 재학 중이며 2024년부터 Deutsche Stiftung Musikleben의 후원으로 Matteo Goffriller, Venedig 1715-1720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다.



정주는 Jueun Jeong

바이올린 Violin

바이올리니스트 정주는은 2021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서 2위 및 청중상을 수상하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완벽하다' 등의 평을 받았으며, 2018년 첫 국제콩쿠르인 제14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에서 입상하며 국제무대에 데뷔 후 금호영재콘서트, 금호영아티스트콘서트, 광주시향 협연 등 솔리스트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또한 '이든 콰르텟'의 멤버로서 2024 프렐미오 파올로 보르치아니 국제콩쿠르에서 한국팀 최초 2위 및 젊은 심사위원상을 수상하며 실내악계 차세대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다. 2023 면사랑 신진 유망 연주자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기업후원을 받고 있는 정주는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과정을 졸업 후, Ning Feng을 사사하며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악대학 석사과정을 최고점으로 졸업하였으며, 현재는 동 대학에서 Konzertmeister/Master Solo 과정에 재학 중이다. 올해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리사이틀 형식으로 치뤄지는 2025 Antonio Mormone 국제콩쿠르 준결승에서는 신세계 면세점이 악기 후원을 할 예정이다.



임지환 Jiwhan Lim

비올라 Viola

15세에 취미로 비올라를 시작하여 16세가 되던 해에 비올리스트의 꿈을 꾸기 시작한 임지환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을 졸업하였으며, Pejun Xu 사사로 독일 쾰른 국립음대 석사과정 최고점 졸업 후 현재 Muriel Razabi 사사로 트로싱엔 국립음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그는 최근 쾰른 국립 음악대학에서 주최된 2022 Internal Hochschulwettbewerb für Viola und Kontrabass에서 3위에 입상하며 국제적인 가능성을 입증하였으며, 음악교육신문콩쿠르, KCO 전국음악콩쿠르(구 바로크음악콩쿠르), 음악저널콩쿠르, 성정음악콩쿠르 1위 등 다수의 콩쿠르에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내었다. 특히 실내악에 큰 의미를 두고 이든 콰르텟 멤버로서 2024년 제13회 프렐미오 파올로 보르치아니 국제 현악 사중주 콩쿠르 2위 및 젊은 심사위원상, 펠릭스 멘델스존 바르톨디 콩쿠르 3위를 수상하며 실내악계 차세대 유망주로 주목받으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민지 Min-Ji Kim

첼로 Cello

한국예술종합학교, 뉴잉글랜드 음악원을 거쳐 툴루즈 콘서바토리 최고 연주자 과정을 수료한 김민지는 아스트랄 아티스트 내셔널 오디션 우승, 허드슨 밸리 필하모닉 현악콩쿠르 1위, HAMS 국제 첼로 콩쿠르 1위, 어빙 클라인 국제 현악 콩쿠르 1위와 위촉 작품 특별상 등을 수상하였다. 필라델피아 캄머, 트리니티 센터, 보스턴 조던 홀 등 유수의 공연장에서 연주하였으며, 아시아 최초로 스페인 레이나 소피아 오케스트라 부수석을 역임하였다. 또한 KBS 교향악단, 서울시향, 공주시충남교향악단,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국내 외 주요 오케스트라에 초청되어 솔리스트로서의 빈틈없는 행보를 거듭하였으며 현재 금호솔로이스츠, 덕수궁 석조전 음악회 음악감독, 첼리스트 첼로 앙상블 수석 및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2023년부터 여수 에코국제음악제의 예술감독으로 선임되어 음악제를 이끌고 있다.



마유경 Yukyung Ma

첼로 Cello

첼리스트 마유경은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를 수석입학 및 수석 졸업 후 도독하여 Hochschule für Musik Hanns Eisler in Berlin에서 석사과정을, Lübeck Musik Hochschule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마쳤다. 일찍이 이화경향콩쿠르 1위, 동아음악콩쿠르 1위, 코리안 심포니, Polish Chamber Orchestra와의 협연에 이어 금호 영아티스트 선정되어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았으며 콩쿠르 부상으로 Bunard Greenhouse foundation에서 Scholarship을 받은 바 있다. 코리안심포니, Polish National Orchestra 등 국내외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통해 솔리스트로서의 입지를 다졌으며 국립심포니, 대전시향에서 객원수석을, Beethoven Orchestra Berlin에서 객원 부수석을 역임하며 오케스트라 연주가로서의 역량 또한 입증하였다. 현재 리수스 콰르텟 멤버로 활발히 활동 중이며 덕원예고에 출강하여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강현 Kanghyun Lee

첼로 Cello

서울예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독일 뤼벡 국립음대에서 석사 과정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최고점으로 졸업하였다. 한국일보 콩쿠르 1위를 시작으로 서울청소년실내악 콩쿠르 대상, 중앙음악 콩쿠르 1위를 수상하였다. 금호 영아티스트 독주회를 비롯해 다수의 독주회를 가졌고, 금호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제주 국제 실내악 페스티벌 등 실내악 연주도 하였다. 2014년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기획한 '라이징스타' 솔리스트로 발탁되어 협연하였으며,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뤼벡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였다. 2013년 '서울예고를 빛낸 사람들'로 선정, 2017년 제 80회 조선일보 신인음악회에 출연, 평론가들이 선정한 '올해의 신인'을 수상하였다. 2018 독일 크로베르크 첼로 마스터클래스에 참가하였고, 프란츠 헬머슨의 추천으로 장학금을 수상하였으며 고티에 카푸송과 루이비통 재단이 주최한 'Classe d'Excellence de Violoncelle' 시즌 2018/2019에 최종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2019년에 스위스 베르비에 페스티벌 아카데미에 선정되었다.



이경준 Kyung-Jun Lee

첼로 Cello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 입학 및 졸업 후 한스 아이슬러 음대에서 석사과정을 수학하였고 노르웨이 국립음악원에서 이 시대 최고의 거장 Truls Mørk를 사사하여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을 졸업한 이경준은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다비드 게링가스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우승을 거머쥐었으며, 이후 다비드 게링가스 국제 첼로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더불어 불가리아 영 비르투오소 국제 콩쿠르 우승 및 칼 다비도프 국제 첼로 콩쿠르 2위 입상 등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아르메니아 국립 교향악단, 클라이페다 체임버 오케스트라, 노르웨이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인천시향, 창원시향, 춘천시향, 코리아쿵 오케스트라, 평창대관령음악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였다. 현재 로위스트링 콰텟, 앙상블 프레기에라, 첼리스트 앙상블 멤버로 활동 중이며 스페인 파블로 카잘스 재단이 수여한 특별상의 일환으로 '파블로 카잘스 박물관' 초청연주와 음반 작업이 예정되어 있다.



이호찬 Hoechan Lee

첼로 Cello

예원학교와 서울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입학, 독일 함부르크 음대 대학원 과정 졸업 후 뤼벡 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짜르테움에서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였다. 예술의전당의 기획공연 "11시 콘서트"와 "토요 콘서트" 시리즈에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비롯해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대전시립교향악단, 양주시립교향악단, 인천시립교향악단, Musicalps Seongnam Festival(지휘:크리스티안 바스퀘즈), 독일 Philharmonisches Orchester Lübeck 등에서도 협연자로 초청되었으며 핀란드의 난탈리 페스티벌에서의 스페셜 콘서트와 폴란드 펜데레츠키센터 연주,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에서 연주를 가졌다. 현재 스테이지원 소속 아티스트, 앙상블 블랭크의 the Artist Committee를 맡고 있고 피아니스트 박상욱과 첫 앨범이 2022년 10월 발매되었으며 연세대학교, 예원학교, 서울예고, 선화예고, 계원예고 출강 중이다.



최경은 Kyung-Eun Choi

첼로 Cello

첼리스트 최경은은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북부왕립음악원과 미국 USC음대에서 전액장학생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화경향, 한국음악협회, 난파 대상, 동아일보, 중앙일보 1위 국내 유수의 콩쿨을 석권하고 Beverly Hills Competition, Julio Cardona International Competition 1위, 지휘자 고 임원식 운파음악상을 수상하였으며 Macau Orchestra, Chester Philharmonic, Los Angeles String Orchestra KCO, 창원시향, 천안시향, 프라임필, 파주시향 등과 협연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El Camino College Cello 교수를 역임하고 전주 비바체페스티벌, 서울국제음악제, 앙상블 오푸스, 여수국제음악제, 더하우스콘서트, PLZ국제음악제, 파주 헤이리 뮤직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하며 현재 서울대학교, 서울예고, 예원학교에 출강, 중국 Flamingo International String Art Festival, 미국 Montecito International Summer Festival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최민지 Minji Choi

첼로 Cello

첼리스트 최민지는 예원학교 수석입학 후 서울예고 재학 중 만 16세의 나이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재 입학하였다. 졸업 후 도봉하여 파리국립고등음악원에서 석사학위를 우수 졸업, 미국 콜번대학교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였다. 이화경향 콩쿠르, 음연 콩쿠르, 성정음악콩쿠르, 대구방송콩쿠르 등 1위, 동아음악 콩쿠르, 중앙음악콩쿠르에서 2위에 입상하며 주목을 받았고 금호아트홀 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 주니어 멤버를 시작으로 Verbier Music Festival, Pacific Music Festival, Music Academy of the West 등에서 수석 첼리스트 및 실내악 주자로서 입지를 넓혔으며 미국 Minnesota Orchestra 정단원, Santa Barbara Symphony 종신단원, Eugene Symphony 부수석으로 수년간 활동한 후 귀국하여 충북도립교향악단 수석단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성남시립교향악단 수석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원, 예원학교, 서울예고에 출강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박예람 Yaeram Park

플루트 Flute

플루티스트 박예람은 20세에 프랑스에서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국립 아비뇽 오케스트라의 종신 수석 플루트 연주자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벨기에 라 모네 왕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으로 21세에 생 모르 국립음악원 (CRR De Saint-Maur)에서 플루트 정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프랑스 생 모르 국립음악원, 파리 국립음악원을 수석 졸업하며, 15세에 파리 국립고등음악원(CNSMDP)으로 진학하여 학사, 석사, 클래식 최고연주자과정을 모두 만장일치 수석 입학과 수석 졸업하였다. 2005년부터 약 2년간 국내의 9개 주요 콩쿠르에 참가, 모두 1위하여 음악저널에 음악평론가들이 선정한 올해의 유망주로 소개되었으며, 퍼큐엔허브, 파카디, 르파르나스 국제콩쿠르, 준국제콩쿠르, 부카레스트 국제콩쿠르 등 유수 콩쿠르에서 최연소 1위를 하였고, 이후 한국음악상 신인상(2013), 폴란드 크라쿠프 국제 플루트 콩쿠르(2014), 덴마크 칼 닐슨 국제 콩쿠르(2014) 그리고 프랑스 막상스 라뤼 국제 콩쿠르(2015)에서 수상하며 주목받고 있다.



유채연 Chaeyon You

플루트 Flute

플루티스트 유채연은 한국예술종합영재원을 거쳐 이듬해 서울예술고등학교에 입학, 재학 중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재로 입학하였으며 2022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졸업하였다. 현재 베를린 예술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에 있으며 독일 청년 오케스트라와 바이에른주립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의 헤르만 레비 아카데미 단원으로 활동 중 2024년 함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플루티스트로 발탁되었다. 이화경향콩쿠르, 코리아헤럴드콩쿠르 1위를 시작으로 2019 제 71회 프라하 국제콩쿠르에서 최연소 1위와 빈 신년 음악회 국제 음악 콩쿠르 목관부문 1위 수상 및 금호영아티스트콘서트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 크누아 윈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협연, 곤지암 플루트 페스티벌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연, TLI 챔버 뮤직 페스티벌 시크릿 초청 연주를 하였으며 2020 금호영아티스트 오프닝 콘서트, 2022 프라하의 봄 국제콩쿠르 우승자 초청 독주회를 통해 자랑스런 한국인으로서는 위상을 드높였다.



김상윤 Sang Yoon Kim

클라리넷 Clarinet

클라리네티스트 김상윤은 2015년 프라하의 봄 국제 콩쿠르 우승자로 일찍이 UNISA 국제 콩쿠르 우승, 자크 랑솔로 국제 클라리넷 콩쿠르 우승 등 다수의 국제 콩쿠르를 통해 국제 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세인트폴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수석 활동 6개월 만에 종신수석으로 임명받으며 북미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22년 미네소타 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사카리 오라모 지휘로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했고 이외에도 브뤼셀 필하모니, 도이치 캄머 오케스터 베를린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유럽, 한국 등지에서 협연을 하였다. 또한 2021년부터 미국 말보로 페스티벌에 시니어 멤버로 매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파리국립고등음악원에 입학한 첫 한국인 클라리네티스트로 이후 미국 콜번 스쿨에서 전문연주자과정을 마쳤으며, 현재 부페 크람퐁, 실버스틴, 반도렌 아티스티자 클럽 M 멤버로도 활동 중이다.



이수빈 Subin Lee

하프 Harp

하피스트 이수빈은 커티스 음악원 졸업 후 예일대학교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며 프레스서 재단에서 학업과 음악적 성취가 가장 우수한 한 명의 장학생을 선발하는 Presser Undergraduate Award를 커티스 음악원 창립 이래 한국인 최초로 수상하였다. 라이언 앤 힐리 어워드, 수오니드아르파 국제 하프 콩쿠르, 파도바 국제 음악 콩쿠르 1위, 안젤 카달라 크레스포 국제 하프 콩쿠르 실내악 부문 1위 및 전체 대상, 홍콩 국제 하프 콩쿠르, 헝가리 국제 하프 콩쿠르에서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2022년, 2014년에 미국 카네기홀, 링컨센터에서 데뷔하였으며, 2024년 예일대학교 TEDxYale 컨퍼런스에 초청 연주 및 2023년 예술의전당 인촌아트홀을 비롯하여 금호아트홀, 일신홀, 페리지홀 등에서 솔로 리사이틀을 가졌다. 야닉 네제-세겐, 지안카를로 게레로, 오스모 반스케, 피터 운진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오케스트라에서 호흡을 맞추었으며, 국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바 있다.



김현희 Hyun hee Kim

소프라노 Soprano

소프라노 김현희는 선화예술 중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였으며, 이태리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국립음악원 (Conservatorio di musica "G.Verdi" di milano) Biennio 과정을 졸업하였다. 국내에서 음악저널, 성정음악콩쿠르, 이대웅콩쿠르 등 다수 콩쿠르에 입상하였으며, <La Traviata>의 Violetta역, <La Bohème>의 Mimi, <Pagliacci>의 Nedda, <Cosi fan tutte>의 Fiordiligi, <Carmen>의 Micaela, <Die Fledermaus>의 Rosalinde, <Die Zauberflöte>의 Papagena, <Hänsel und Gretel>의 Die Knusperhexe, <Carmen>의 Mercedes, <박하사탕>의 윤순임, <빨간구두>의 카렌, <장옥진>의 아가씨, <클라라 슈만>의 클라라 역 등 다양한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무대에 오르고 있다. 소프라노 김현희는 국내에서는 서혜연, 최훈녀 교수님을, 국외에서는 Stara Carmen, Bonaldo Giaiotti 을 사사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예원, 서울예고, 선화예중, 선화예고, 덕원예고, 대원여고에 출강하여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이다.



석상근 Matteo Suk

바리톤 Baritone

바리톤 석상근은 성악의 본고장인 이태리 마스캇니 국립음악원을 졸업 후 스페인 자코모 아라갈 국제성악콩쿠르1위, 이태리 레나타 테발디 국제성악콩쿠르1위, 움베르토 조르다노 국제성악콩쿠르1위, 줄리에타 시묘나토 국제성악콩쿠르1위, 발세시아 국제성악콩쿠르1위, 레온카발로 국제성악콩쿠르1위 외에 유럽의 권위 있는 국제성악콩쿠르에서 7차례 그랑프리 우승을 이뤘다. 폴란드 바르샤바국립오페라극장 <나부코> 주인공역을 성공적으로 데뷔 한 후 독일 뮌스터시립극장 전속 솔리스트로 발탁이 된 그는 20년간 유럽극장에서 <일 트로바토레>, <사랑의 묘약>, <리골레토>, <세빌리아의 이발사>, <라보엠>, <라트라비아타>, <맥베드> 등 수 많은 작품에서 주역으로 참여했다. 일본 도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스페인 마드리드 RTVE 라디오방송교향악단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단 초청공연과 국립오페라단 <가면무도회> '레나토' 역으로 한국무대 첫 데뷔 이후 서울시립오페라단,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등 전국무대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특히 <Memory> 섬집아가, 과수원 길, 고향의 봄 등 귀에 익은 동요 8곡을 수록한 음반을 발매했다. 현재 사회적 기업 (주)툴뮤직 소속 아티스트와 이 마에스트리 정단원으로 국내외 해외무대에서 활약 중이다.



리수스 콰르텟 Risus Quartet

앙상블 Ensemble

2021년 미국에서 열린 피쉬오프 챔버콩쿠르 (Fischhoff Chamber Music Competition)에 총 250여명이참가한 가운데 한국인 최초로 시니어 스트링 부문 우승과 함께전 부문 대상을 수상한 리수스 콰르텟은 부상으로 주어진, 같은 해 10월 미국 순회 연주와 스폰서인 Darnton& Hersh Fine Violin의 지원으로 시카고의 과르네리 홀에서 레코딩을 끝으로 북미에 이름을 알렸다. 또한, 2022년 7월 이탈리아 투어연주로 세계적으로 활발한 음악활동을 시작했다. 2022년 4월에는 위그모어 홀 국제 현악4중주 콩쿠르 (Wigmore Hall International String Quartet Competition)에서 특별상을 수상,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열린 제 37회 옐로 스프링스 콩쿠르 (Chamber Music in Yellow Springs 37th Competition) 에서 우승, 9월 ARD 국제 콩쿠르 (ARD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in Munich)에 Semi finalist까지 오르며 2020년 5월 결성 이후 이뤄낸 성과가 이들을 주목하게 만든다. 최근 2024 아트실비아 실내악 오디션 특별상 수상 및 2023 호주 멜버른 국제 실내악콩쿠르 현악사중주 부문에서 3위 및 특별상인 현대음악 해석상을 차지함으로써 본적으로 전문 현악사중주단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1st Violin 이해니 2nd Violin 유지은 Viola 장은경 Cello 마유경



이든 콰르텟 Eden Quartet

앙상블 Ensemble

2023년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 3위 입상 및 2022년 독일 최고 권위의 ARD 국제 콩쿠르 세미파이널 리스트인 이든 콰르텟은 "4명이 함께일 때 더욱 빛나는 팀"으로 평가받으며 2024년 제 13회 프렐미오 파올로 보르치아니 국제 현악 사중주 콩쿠르에서 한국팀 최초 2위 및 젊은 심사위원상 수상과 더불어 펠릭스 멘델스존 바르톨디 콩쿠르 3위 수상 소식과 함께 실내악계의 차세대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다. 첫 공식연주인 원먼스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하우스콘서트 및 갈라콘서트, 부산영화의전당 11시 음악회,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실내악 프로젝트 I>, 책가옥 시리즈, 계촌마을 클래식 거리축제, 익산예술의전당 <실험실콘서트>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대관령 MPyC's Pick(with 노부스 콰르텟/2019), 예술의전당 여름음악축제 선발 및 연주(2021), 아트센터인천 마티네콘서트 <김정원의 낭만가도-시간여행>(2023) 시리즈, 독일 히트커 페스티벌(Hitzacker Festival 2023) 초청 연주로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있으며 현재, 독일 하노버 음악대학에서 Oliver Wille 교수 사사로 실내악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Violin 정주은, 임동민 Viola 임지환 Cello 정우찬

*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객원 첼리스트 이강현의 연주로 함께 합니다.



앙상블 에드 무지카 Ad Musica

앙상블 Ensemble

2020년 창단된 에드 무지카(Ad Musica)는 '음악의 본질로(Back to Music)'라는 뜻으로,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를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이 모여 예술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갖춘 전문 연주단체이다. 2020년 창단 연주와 함께 다채로운 주제와 깊이 있는 음악으로 관객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 에드 무지카는 2021년 모차르트 서거 230주년을 기념한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녹음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트 체인지 업'에 선정되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실내악 페스티벌 <Remembering Mozart>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 작곡가 브람스와 슈베르트의 음악을 중심으로 예술의전당을 비롯하여 모두 세 차례의 콘서트를 개최, 그 중 <The Concert in B>는 EBS의 공연 리뷰 프로그램 <지성과 감성>을 통해 방영되었다. 2023년 기획 콘서트 "어느 위대한 예술가의 추억 I & II"에 이어 올해 역시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 사업에 선정된 에드 무지카의 2024년 프로젝트 "Metamorphosis" 시리즈를 통해 선보여질 총 3회의 무대는 '음악의 본질로'라는 단체의 의미와 같이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의 정교하고 깊이 있는 선율로 그들만의 행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Violin 김현미, 황인영, 이슬기, 여예슬, 김신혜, 권혁민, 황영지, 김지영, 노서균, 박예진

Viola 정승원, 장희재, 조혜민, 유완재, 주영현

Cello 최경은, 이길재, 원민지, 한동윤, 조수린

Double Bass 박상현, 김아람, 서지은



SAMSUNG

Galaxy Z Fold6 | Z Flip6

Galaxy AI ✨ is here



역대급 강력한 AI 폴더블 폰의 탄생

samsung.com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일부 AI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が必要です.
플렉스 모드는 75°~115°의 각도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며, 해당 범위를 벗어날 경우 안전히 펼쳐지거나 접힐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삼성닷컴에서 확인하세요

